

■ 엔리케 두셀: ‘철학함’의 기초로서의 역사

조영현

‘주변부’와 “역사 없는 라틴아메리카”

“나는 결함을 가진 현 체제에서 배제된 자들, 아니 이 체제가 양산하는 희생자들의 관점에서 철학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해방철학이지요.” 두셀은 자신의 사상에 대해 묻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답한다. 그는 이러한 전망을 토대 삼아 자신만의 거대한 사유의 성을 쌓아 왔다. 세계 철학계가 그의 업적을 인정했기에 2008년 서울세계철학대회 기조 강연자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다. 2010년에는 해방철학에 대한 이론적 기여로 베네수엘라 정부가 수여하는 해방자 상(Premio liberador)을 수상했다. 그는 지난 40년간의 사유의 궤적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철학을 대표하는 사상가로 우뚝 섰다.

두셀은 무엇보다 세계 철학계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서구철학과 이 철학이 기대고 있는 헬레니즘중심주의, 서구유럽중심주의, 근대성, 서구 기준의 역사구분을 비판한다. 이러한 사유가 제삼 세계를 세계사의 주변부로 밀어내고 있고, 그곳에 사는 인간과 역사, 문화를 폄하하기 때문이다. 두셀은 자신이 서 있는 변방에서 ‘배제된 자들’과 ‘소외된 역사’의 권리 회복을 외치기 위해 주변부 역사를 탐구한다.

두셀은 마드리드 유학시절 이미 자신이 유럽에서 ‘이류 시민’으로 취급된다는 것을 알았다. 라틴아메리카 사람으로서 유럽

인들 사이에서 '제3세계'가 무엇인지 발견했다. 자신이 그들에게 변방의 인간이요 주변부 사람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이 살던 세계가 유럽인에게 타자로 인식된다는 데 충격을 받았다. 이 경험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자신과 역사를 성찰하도록 자극했다.

이 제3 세계 철학자에 따르면 인류에게 빛을 던지고 암흑과 무지에서 해방시키겠다던 계몽사상은 유럽 이외의 지역에 야만의 굴레를 씌운 가해자다. 그 중심에 헤겔의 사유가 있다. 근대 유럽 철학을 집대성한 헤겔은 이성을 무한한 힘으로 보았고 실제로 파악했다. 헤겔은 자신의 역사철학을 통해 역사를 지배하는 것은 이성이며, 역사의 흐름은 자유의 발전과정이라고 선언했다. 이 유럽 철학자에게 라틴아메리카는 자유가 결여된 땅, 비이성, 야만과 미성숙의 대륙이었다. 이성이나 자유의 태동, 그것들의 발전과는 무관한 지역이므로 진지하게 다룰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에게 라틴아메리카는 이성과 자유의 발전에 전혀 기여한 것이 없는 대륙이었다. 이런 전망에서 보면 이 지역은 정신의 발전사를 다룬 세계사의 여백에나 존재하는 땅이었다.

멕시코의 철학자 레오폴도 세아는 역사 밖에 있는 라틴아메리카는 결국 '역사 없는 라틴아메리카'라며 한탄했다. 그의 글을 통해 두셀은 패권을 장악한 서구의 시각과 그들의 이성에 기초한 역사가 어떻게 서구 밖의 세계를 배제하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두셀에 따르면 서구의 역사 비전은 헤겔의 보편사적 시각과 18세기 독일 낭만주의자들의 발명품일 뿐이다. 서구라는 패권을 장악한 주체가 서구 밖의 세계를 타자화하고 외부화시켜 이류 역사로 전락시킨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다른 지역의 민중은 역사 없는 민중이 됐다. 두셀은 '지식의 식민성' 속에 매인 제3 세계 지식인들이 마치 이것이 진리인양 차용하고 이 논리를 반복적으

로 재생산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역사에 도사린 서구 우상의 가면 벗기기

두셀은 먼저 ‘근대성’ 문제와 ‘타자’ 라는 개념을 교차시키면서 라틴아메리카 역사를 재해석한다. 그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근대성이 결코 억압과 굴레에서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해방적 이성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의 시각에서 보면 근대성은 인류를 해방시키는 이성이 아닌 지배와 폭력을 정당화하는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신화를 양산할 뿐이다. 근대성은 유럽이 타자와 만나면서, 그리고 그것을 통제하고 정복하고 폭력을 가하면서 성립됐다. 다른 말로 하면 유럽이 타자를 정복하고 식민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우월성을 주장하기 위해 아메리카를 야만의 땅으로, 인디오를 열등한 종족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유럽인들은 아메리카에 도착했을 때부터 이 지역의 모든 것들과 원주민의 정신세계까지도 대상화함으로써 그들의 현실을 은폐해 버렸다. 그 위에 서구의 것을 강요하고, 물질적인 의식주 뿐 아니라 정신적인 생각까지 서구의 것으로 흡수해 버렸다. 두셀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바로 합리성과 인본주의를 내세운 근대 이성의 진면목이었다.

물리적 폭력을 독점한 유럽은 이 비인간적이고 반이성적인 수단을 통해 식민화를 진행했다. 유럽이 비서구인 타자를 근대의 변방으로 밀어내고 주인이 된 해가 바로 1492년이다. 유럽은 타자가 지니는 차이를 수용할 수 없었다. 타자인 라틴아메리카를 유럽이란 ‘동일자’에 동화시켜 버렸다. 유럽화 과정에 흡수되지 않거나 통합되지 않는 것은 제거했다.

두셀은 그의 명저 『1492. 타자의 은닉』에서 ‘정복하는 자아’가 지배와 체계모니를 강화하기 위해 타자를 억압한 것이 근대적 자아의 시작이라고 주장한다. 근대 이성 자체가 과학적·합리적 이성에 기초했다는 주장은 서구유럽에 의해 기획되고 재단된 신화라는 얘기다. 두셀의 시각에서 보면 근대의 이성은 ‘전쟁의 이성’(Razón de guerra)이다. 역사 진행 과정에서 만나는 타자(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정복하고 제거해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두셀에게 1492년은 ‘아메리카 발견의 해’라는 의미보다는 세계체제, 자본주의, 근대성과 식민성이 인류사에 모습을 드러낸 해로 각인됐다.

두셀은 제국적 시각이 반영된 역사 해석과 그 모델에 저항한다. 그가 왜곡된 역사관을 폭로하는 것은 제국적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역사 해석의 위선과 한계를 드러내기 위해서다. 그는 레비나스의 타자(또는 타자성) 개념을 이용해 “역사의 이면으로부터 시작하는 역사”를 기술하고자 한다. 공식역사가 배제한 패배자들의 역사, 주체가 배제한 타자의 시각에서 역사를 바라본다. 발터 벤야민의 주장처럼 두셀도 승리자 중심의 역사사료와 해석에 기초해 기록되는 역사에는 희생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희생자들의 시각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과거 기억에 대한 해석과정에 있어서 지식의 체계모니를 장악한 주류의 의견만 인정하는 세태와 학문이 갖는 한계를 비판한다.

두셀은 노예, 종, 농민, 노동자, 원주민, 프롤레타리아, 소수인종, 여성 등을 라틴아메리카에서 타자화된 존재로 파악했다. 따라서 그는 불의한 지배체제 개혁을 위해 일으킨 타자들의 해방투쟁과 민중운동에 관해 재해석했다. 여기에는 벤야민이 주장한 “역사를 거꾸로 솔질하기”라는 방법이 사용됐다. 이 과정에는 기존 공식 역사를 해체하고 전복시키는 작업이 포함된다. 다른 말로

하면, “아래로부터”의 전망에서 지배자들의 역사 기술과 공식 버전에 대항한 하위주체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다. 그는 억압받는 자들의 전통과 패배자의 절규, 지배체제가 양산한 희생자들의 관점에서 역사와 현실을 해석할 것을 주장한 벤야민의 성찰과 전망을 따르고 있다. 이처럼 두셀의 역사관 뒤에서 우리는 벤야민과 레비나스의 그림자와 마주치게 된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 배려와 교회사에 대한 기여

두셀은 구스타보 구티에레스 등과 함께 해방신학 1세대 학자로 분류된다. 그는 해방신학이 억압받는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서 역사를 조망하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 그는 유럽에서 학업을 마친 후 고국 아르헨티나로 돌아가지 않고 두 해 동안 이스라엘에 머물렀다. 그곳에서 목수와 노동자로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체험을 했다. 이때부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깊은 책임의식이 그의 사상에 각인된다. 그가 고향에 돌아왔을 때 ‘가난한 사람들’과 그들의 문제는 연구의 핵심 주제로 부상한다. 두셀의 해방철학도 해방신학과 마찬가지로 라틴아메리카 대다수 주민이 겪는 가난과 억압의 문제를 의문시하면서 태동했다.

두셀의 역사적 시각은 동료 해방철학자들 뿐 아니라 해방신학자들에 의해서도 수용됐다. 그는 전통교회가 가졌던 교회사와 세속사, 그리고 구원사와 세계사를 구분하는 이원론적 시각을 거부한다. 그에게는 하느님의 섭리에 의해 움직이는 거룩한 역사(구원사)와 죄 많은 인간들이 만들어 가는 세속사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하나의 역사만이 존재한다. 거룩한

하느님이 개입하시는 세속의 역사가 그것이다. 죄 많고 불의하고 모순에 가득 차 있지만 이 역사가 바로 인류의 역사며, 이것이 유일한 역사다. “이 외의 다른 역사는 없다”고 그는 단언한다.

해방신학은 가난과 억압이 지배하는 비인간적 현실, 군부독재 정권과 인권유린 상황 등 질곡과 명에에서 벗어나 자유의 길로 나아가려는 민중의 투쟁을 성서나 교회의 전통, 신앙에 기초해 전개한다. 반면에 해방철학은 같은 문제와 대안을 논리학, 현상학, 인식론, 형이상학, 윤리학, 비판적 마르크스주의 등 철저히 이성애 근거해 설명해 보려 한다. 두 학문 모두 인류의 대다수를 괴롭히고 옳아매는 지배 메커니즘을 비판하고 변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해방철학은 해방신학과 동일한 해방이라는 목표를 지향한다. 여기서 해방은 단순히 정치적 해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종교적·문화적 해방을 포함한다. 한마디로 총체적 해방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해방철학과 해방신학은 탄생의 맥락 면에서 유사하다. 후자는 신을 모든 것의 중심에 두는 학문이며, 전자는 인간 이성에만 의존해 사유를 전개한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차이를 보일 뿐이다.

두셀은 라틴아메리카주교회의 산하 라틴아메리카교회사위원회(CEHILA, La Comisión para el Estudio de la historia de la Iglesia en América Latina)의 위원장으로서 오랫동안 이 위원회를 이끌었다. 교황과 주교, 성직자 중심의 역사기술을 지양하고 아래로부터의 사관을 적용해 이 대륙의 역사를 기술하도록 동료들을 독려했다. 그는 원주민 인권수호에 앞장선 라스 카사스를 비롯한 16세기 선교사들을 해방신학의 선구자로 평가하고 해방신학의 뿌리를 16세기로 설정했다. 그러나 로마중심주의, 성직중심주의에 물든 보수주의자들은 두셀의 역사관을 무시하고 반대했다. 교회 내 반해방신학 정서와 보수주의 노선의 고위성직자들

때문에 교회로부터 나오던 재정지원이 중단됐다. 이미 출판된 15권이 넘는 방대한 양의 총서가 전량 회수되자 두셀과 라틴아메리카교회사위원회는 제도교회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자노선을 걷기 시작했다. 이 단체는 “자신들이 우수하다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정복자들은 그리스도교의 하느님을 이용했다. 그를 권력과 억압의 상징으로 변형시켜 버렸다. [...] 이것은 우리 생각에 ‘서구의 이상’ 일 뿐이다” 라고 선언했다. 1989년 10월 12일 콜럼버스의 아메리카대륙발견기념일 반대 투쟁의 일환으로 발표한 이 단체의 선언은 결국 ‘정복자들의 그리스도교’, ‘가진 자들의 입장을 두둔하는 그리스도교’와의 결별 선언이 됐다.

‘탈아테네’ 를 위한 해방의 정치사

두셀의 최신 저작 중 하나인 『해방정치, 비판적 세계사』(Política de la liberación, historia mundial y crítica)는 정치사상사 안에 산재한 서구유럽중심주의 시각과 인식적 오류를 지적하고 정치사상사에서 배제된 지역과 인물의 사상을 다루기 위해 기획됐다. 무엇보다 두셀은 세계 정치사를 기술함에 있어 아테네를 출발점으로 삼지 않는다. 서구의 역사가들은 아테네의 폴리스에서 시작된 정치가 민주주의(democracia)의 시작인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demo라는 낱말은 이집트 어에서 기원한 것으로 마을(aldea)이라는 뜻이다. 두셀은 아테네 중심의 정치사 기술에 반대한다. 실제적으로 그리스에 있는 모든 정치제도는 페니키아와 칼데아 혹은 이집트 것이다. 정의(justicia)라는 말은 칼데아 지역의 dique라는 말에서 왔다. 그는 오히려 메소포타미아의 함무라비 법전처럼 고대 근동의 법체계에서 정치의 기원을 본다.

두셀은 세계 정치사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고대, 중세, 근대로 이어지는 시기구분을 모든 지역의 역사에 적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것은 유럽사를 공부할 때만 타당하다. 아랍세계에는 유럽식 중세가 존재하지 않았다. 유럽은 세계의 패권을 장악한 중심도 아니었다. 오히려 전 지구적 관점에서 볼 때 오랫동안 고립된 섬이었다. 특히 아랍이 세계 정치 네트워크의 중심일 때 유럽은 변방이었다. 바그다드가 약 500년간 세계를 연결하는 고리였고 이곳에서 대항상들은 세계로 뻗어 나갔다. 군더 프랑크가 『리오리엔트』에서 주장한 것처럼 두셀도 오랫동안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었다고 주장한다. 유럽이 세계 패권을 완전히 장악한 것은 최근 200년 정도다. 두셀은 그 동안 서구 정치사가 등한시한 중국, 고대근동, 페르시아, 라틴아메리카 등 유럽 밖의 정치사를 중요하게 다룬다. 그는 유럽중심의 세계사가 아닌 다른 지역 모두를 포괄한 진정한 세계 정치사를 쓰고자 했다. 유럽사를 중심에 두고 세계사를 공부하는 것은 역사의 왜곡된 비전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두셀은 잘못된 역사 비전을 갖고서는 결코 정확한 현실 이해나 신뢰할 만한 학문에 도달할 수 없다고 보았다. 역사가 학문을 전개하는 데 바탕이요 지평 역할을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두셀은 다른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홉스, 로크, 마키아벨리 등을 최초의 근대 정치사상가로 보지 않고 오히려 라스 카사스, 세풀베다, 비토리아, 수아레스 등 스페인 사상가를 최초의 근대 정치철학자로 본다. 그는 새로운 관점에서 정치사상사의 계보를 짚는다. '신세계 발견'이라는 역사적 사건 주변에서 파생된 문명, 타자성, 차이, 정복, 법, 정치제도의 합법성 논쟁 등을 중심으로 중세적 전제들을 탈피해 주체성과 관련된 근대적 표현들이 나타나는 것에 주목한다. 따라서 두셀은 유럽의 근대가 1492년을 기

점으로 시작됐다는 그의 주장에 기초해, 스페인을 최초의 근대국가로 설정하고 역사 속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스페인어권 정치사상가들을 발굴해 재평가한다.

메소아메리카에 존재하던 민중이란 개념의 알테페틀(altepetl)과 다양한 칼풀리(calpuli, 여러 가족 간의 연계로 묶인 그룹)들의 결합으로 형성된 정치공동체와 그 제도를 통해 고대 마야와 아스텍 원주민의 정치사상을 해석한다. 특히 카를로스 렌커스도르프와 같은 연구자가 도출해 낸 마야 언어 안에 내재된 ‘우리의식’, 원주민 사회에 내재된 공동체 사상, 정치적 사안에 대한 구성원 간의 합의과정의 장점들을 민주주의적 특성과 연결시킨다.

다른 ‘철학함’의 기초로서의 역사인식

두셀은 이미 1960년대 후반부터 종속이론, 해방신학, 탈식민주의 등 새롭게 태어나는 라틴아메리카의 비판적 사상을 주조하고 전파하는 데 깊이 개입했다. 해방철학은 1970년대 초반부터 라틴아메리카 비판적 사유 전통과 깊은 관련을 맺었다. 이 경험은 해방철학 태동의 배양액 역할을 했다. 이런 비판적 이론과 교류하면서 해방철학은 하나의 라틴아메리카 사상으로 숙성됐다.

두셀은 자신이 서 있는 라틴아메리카라는 현실에서 사유의 실타래를 풀어낸다. 서구 제국주의적 지식과 시각이 강요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고유한 현실에 대해 비판적으로 묻고 답하는 ‘철학하기’를 하지 못하면 월터 미놀로(Walter Mignolo)가 말한 “지식의 식민성”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가 기존 체제 밖으로 밀려난 희생자의 관점에서 역사를 기술하는 것을 통해 최종적

으로 주장하는 바는, 억압받고 희생자가 된 사람들이 자신의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점이다. 이처럼 두셀의 해방철학이나 해방신학의 기초에는 전복적인 역사 인식과 해석이 자리 잡고 있다. 그의 철학과 신학이 설득력이 있는 것은 무엇보다 현실에 대한 깊은 역사적 지식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학문은 역사라는 틀에 머물지 않는다. 철학자로서 철저히 이성적이다. 그러나 동시에 신학자로서 사랑에 대한 감성과 인식도 가지고 있다. 그는 냉정한 이성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과 인류의 아픔에 민감한 이성으로 역사를 바라본다. 그는 철학을 하되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아픔에 둔감한 서구 이성(Razón indolente)에서 탈피하고자 한다.

두셀은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라고 선언한 세계사회포럼과 같은 맥락에서 서구철학을 넘어 기존과는 ‘다른 철학’을 시도하고자 한다. 그 기초에는 바로 ‘다른 역사 인식’, 즉 역사의 이면에서 출발하는 역사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그는 역사와 철학에 대해 말하면서 학생들에게 타인의 고통에 대한 민감성과 감수성을 요구한다. 그의 역사서술에서 우리는 지배제제가 감춰 버린, 잊힌 존재들의 목소리를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배제당하고 억압당한 채 살아가는 우리 이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해방철학에는 프란츠 파농(Frantz Fanon)이 인디오와 흑인 노예 등 식민화된 존재에 붙인 이름인 『대지의 저주 받은 사람들』을 출발점으로 하는 역사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두셀의 해방철학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나 그것의 해석에만 집중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불의한 역사와 현재를 변혁시키고자 한다. 단순한 이론의 정립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질서를 건설할 책임을 인식하며 행동으로 실천하는 철학운동과 연결된다. 따라서 역사와 현실을 해석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 오

히려 마르크스가 역설한 “철학자들의 임무는 단순히 세계를 해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변혁하는 것이다” 라는 선언에 충실한 프락시스(Praxis) 철학이다. 그는 새 역사 해석을 통해 불의한 체제의 변혁을 선도하려 한다.

조영현 -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
